

# 인도네시아 관광시장 동향(8월)

'24.08.30(금) 한국관광공사 / 자카르타지사

## □ 시장 동향

### ○ (방한) 한국 포함 동아시아, 인도네시아 선호 관광지로 부각

- 최근 인니 최대 OTA 트래블로카(Traveloka)가 주관하는 여행박람회에서 CEO인 이코 뿌트라는 최근 검색량을 기반으로 인니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목적지로 한국, 일본, 중국, 마카오, 터키라고 언급
- 참고로, 트래블로카는 지난 7월 한국배우 지창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대규모 광고 및 판촉활동을 전개 중임

### ○ (방한) 하반기 제주항공의 인천-발리간 신규 운항 등 국제노선 증가

- '24년 10월 말 제주항공의 인천-발리 신규취항 예정 등 다양한 국내외 항공사가 하반기에 신규 국제노선 운항 개시하거나 증편 예정임
- \* 제주항공 : 인천 - 덴파사르 주7편 (10월27일/좌석 수: 189/일)
- \* 바틱 에어: 수라바야, 파당, 프칸baru - 쿠알라룸푸르 (8월)
- \* 슈퍼에어젯: 아체 - 쿠알라룸푸르 (8월)
- \* 에어아시아: 덴파사르 - 코타키나발루, 퍼켓, 케언즈 (8월)
- \* 중국남방항공: 덴파사르 - 선전 (8월)
- \* 에미레이트: 덴파사르 - 두바이 주14편 운항 증편 (9월)
- \* 대만 스타룩스: 자카르타 - 타이베이 (9월)

### ○ '24년 8월 가장 붐비는 항공노선 탑 10에 자카르타 운항 노선 포함

- 항공정보 제공업체 OAG(Official Airline Guide) 데이터에 의하면, '24년 8월 가장 붐비는 국제노선 Top10에 자카르타-싱가포르 노선이 포함됨
- 자카르타-싱가포르 노선은 월 34.2만석으로 10위를 차지하였으며, 홍콩-타이베이(58.3만석), 쿠알라룸푸르-싱가포르(47.7만석), 인천-도쿄(47.5만)가 상위3개를 차지

### ○ 24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인·아웃바운드 현황

- 인니중앙통계청에 의하면 상반기 인니인 해외여행자 수는 총 446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520만명 대비 86%, 전년 동기 368만명 대비 121% 달성
- 6월 한달동안 90만명(전년 동기 대비 44% 증가)이 해외를 나갔으며, 주 방문국은 말레이시아(32%), 사우디(16%), 싱가포르(13%) 등으로, 학교방학, 이슬람 희

생제 연휴 외에 하지(성지순례)등에 기인함

- 한편, 상반기 인니방문 외래객은 총 641만명으로 전년 대비 21% 증가하였으나, 정부의 24년 목표치 1,700만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
- 주요 방문객 국적은 말레이시아(109만), 호주(76만), 싱가포르(67만), 중국(56만), 인도(35만) 등이며, 한국은 약 19만 명이 방문함

## □ 정책 동향

### ○ 인도네시아 신수도 IKN 누산타라의 주요 관광지 오픈

- 인니 관광창조경제부가 신수도 누산타라 관광지는 국내외 관광객들 대상으로 '24년 8월부터 개방한다고 밝힘
- 누산타라 주요 생태·자연 관광지는 니빠니빠 관광마을, 문타와이 관광마을, 방키라이 언덕 등이며 인니 관광창조경제부는 현지 관광스카우트와 협조해 관광지의 자연을 보전 및 인니 신수도 관광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임

### ○ 발리 오버투어리즘 방지를 위한 인니 관광창조경제부의 3B 프로그램

- 인니 관광창조경제부는 발리 남부지역(덴파사르, 쿠타, 우붓 등) 방문객이 초과함으로 인한 '오버투어리즘 방지' 정책 실행을 필수라고 주장함
- 정부는 발리 내 지역 관광객 균형을 위한 북부 및 서부 발리 방문객 유치를 위해 현지 여행사와 공동으로 3B(바뉴왕이(Banyuwangi, 자바섬 동쪽 끝 지역), 불레렝(Buleleng, 발리 북부), 발리 서부(Bali Barat) 여행상품 개발·판촉 계획 중임

### ○ '25년 인니 인바운드 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위한 인니관광창조경제부의 제안

- '24년 10월 인니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(산디아가 우노)은 신정부의 2025년 인도네시아 외래객 2천만명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선 증편, 5대 국내관광지(DPSP)\*를 보전하고 개발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함
- 5DPSP(Destinasasi Pariwisata Super Prioritas)는 현 조코위도도 정부의 국내관광지 개발 프로그램으로, 보로부두르 사원, 토바 호수, 만달리카, 라부안 바조, 리쿠팡 해변이 해당됨
- 인니 정부는 5대 국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족자카르타 신공항 건설, 토바 호수 국제체육이벤트 F1 Powerboat 개최, 만달리카 서킷에서 MotoGP 개최, 라부안 바조 생태관광 개발 등을 추진중에 있음

## □ 시사점

- 8월도 전통적인 계절적 비수기(여름/6~8월)로서 6월 중순 이후부터 방한인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, 방한인원 선행지표인 비자발급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인니 방한인원 반등이 예상됨
- 10월 신규 직항편 운항 개시 등과 맞물려 가을·겨울 시즌 계기 방한 수요 회복을 위한 집중 마케팅이 요구됨

※ 현지 언론, 내부조사, 통계자료 등 종합